

## 촬영과 편집의 즐거움

이인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의 히키코모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다. 히키코모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방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소 무거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큐멘터리는 가볍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그리고 히키코모리 그들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왜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는지, 나아가 일본 문화의 전반을 알려주는 다큐멘터리였다. 다큐멘터리 하나로 그 사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당시 나는 꽤나 충격을 받았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것은 거의 다 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고 1학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수강 과목에 <영상인류학>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접 조를 짜서 어떤 주제에 관해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목이었다. 당연히 나는 그 수업을 꼭 듣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영상물을 어떻게 찍고 편집하는지 전혀 몰랐다. 영상과 관련된 기기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고작이었고, 그나

마도 켜고, 찍고, 끄는 것 밖에 몰랐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견학 간 곳에서 매킨토시로 프리미어(premier) 프로그램을 한 번 다뤄 본 것이 전부였다. 그 과목을 듣고 싶은데 영상에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차에 <디지털 미디어 강좌>가 있다는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호기심에 클릭을 했다.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초보자와 숙련자를 분류되어 수준에 맞는 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초보자인 나는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설문조사를 마친 후 나는 어느새 <영상제작과정 입문>에 신청했다.

신청을 하고 나서 며칠 후 드디어 강좌가 시작되었다. 마침 학교 축제 기간이라 수업이 휴강되어 강좌를 듣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디지털 미디어 강좌: 영상제작과정 입문>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총 세 시간씩 이틀로 이루어졌다. 교수님께서 올해 입학한 새내기에 이르기까지, 참가자 총은 주로 강의를 준비하시기 위한 교수님들이 많으셨지만, 비교적 연령대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지리학과군 재학 중



카메라 촬영에 대한 이론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은 두 사람이 한 조를 짜서 조원들끼리 카메라로 서로 촬영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가 다양했다. 영상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듯이 10여 명 남짓한 참석 인원들은 강의에 모두 열심이었다. 강의에 참가하는 사람이 적었던 것이 강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까닭인 것 같다.

첫날 강의는 카메라 촬영 이론 설명과 카메라를 현장으로 직접 갖고 나가 찍는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영화 언어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화면 크기에 따라 관객과 현실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배웠다. 특히 Extreme Close up에서 Extreme Long shot으로 갈 때, Extreme Close up에서 Extreme Long shot으로 갈 때의 감정 변화를 배울 때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찍을 때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것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인터뷰하는 법도 배웠는데,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었던 나에게 이 방법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첫날의 카메라 촬영 이론에 관한 수업은 학생들은 나누어준 교재를 보고, 선생님은 그 교재

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띄워 읽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소 지루했다. 교재에 예로 든 장면에서는 사진이나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방식으로 찍혔던 장면을 직접 보여주었으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었을 것 같다. 하지만 모르는 점을 질문하면 즉시 대답해 주어서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드디어 이론 수업이 끝나고 실제 촬영. 선생님께서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 두 명씩 조를 지어 주고, 조마다 카메라 한 대씩 나누어 주셨다. 나도 옆 사람과 조를 되어 카메라를 받았다. 카메라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새삼스레 거대한 카메라를 짊어지고 밀림을 뛰어다니는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존경스러워졌다. 선생님께서는 아까 가르쳐준 촬영 기법대로 찍어도 보고 인터뷰도 해 보라고 하셨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찍은 것을 선생님께서 화면으로 보여주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다.

이틀 후인 둘째 날에는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다. 편집은 촬영한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전에 딱 한 번 다루어 보았던 프리미어(premier)였다. 윈도우 무비메이커(moviemaker)보다는 프리미어(premier)가 좀 더 전문적이어서 이걸 주로 쓴다고 한다. 기본 세팅에서부터 단축키 사용, 동영상 끌어와서 붙이기, 자르기, 화면 전환하는 방법까지 프리미어(premier)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을 배웠다. 선생님의 설명이 빠르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틈틈이 조교

님께 질문을 해 가며 따라갈 수 있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실제로 편집을 해 보는 시간이 있었다. 참가자들이 찍은 동영상은 용량이 너무 커서 편집을 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교수학습 개발센터의 웹하드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야 했다. 동영상 네 개를 다운받아서 순서대로 맞춰 보기도 하고 화면전환과 자막 넣기 등등 여러 효과를 주면서 편집 실습을 했다. 아주 간단 하지만 또 필수적인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인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얻어 가지는 못하였다. 어쩌면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무언가 거창한 것을 얻어 가려던 것은 내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강의는 입문과정이라는 말에 알맞게 아주 기초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영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금방 배울 수 있는 수준이었다. 비디오 카메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배웠다. 그러나 첫째 날 수업에서 촬영한 것을 일일이 보고 지적을 해주신 반면에 둘째 날 배운 편집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지적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더욱 아쉬웠던 점은 자신만의 작품을 찍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두 명이 같은 카메라를 쓰며 같은 테이프를 나누어 써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으면 테이프를 가지고 오세요'라고 홍보한 취지가 흐지부지 된 것 같았다. 자신의 작품을 만들려면 자신의 카메라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자신이 찍은 것을 직접 편집할 수 없었던 점도 매우 아쉬웠다. 나뿐만 아니

라 자신의 작품에 대해 궁금해 했던 많은 참가자들이 자기 작품을 편집해 볼 수 없다는 점을 매우 아쉬워했다. 게다가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전산실 내에서도 용량이 부족해서 프리미어가 잘 운영되지 않는 컴퓨터가 몇 대 있어 선생님께서 어떤 자리는 앉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11월에 있을 <디지털 미디어> 강좌에서는 1인당 카메라가 1대씩 지급되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촬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좌 시간을 넉넉하게 늘려서 자신의 작품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까지 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동안에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마지막 날에는 자신이 찍은 것을 편집하여 하나의 작은 작품으로 완성해 보는 과정이 배운 것을 총 점검하고 복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 결석한 일 없이



이번 강좌를 맡은 오정석 강사(학습지원부)가 참가자들이 찍고 편집한 동영상을 보면서 조언해 주고 있다.

모두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정식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가한 사람들은 참가 이유가 다들 달랐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위해, 어떤 사람은 강의 준비를 위해, 결국 나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이 강좌를 들은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했

기 때문이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얼마나 얻어 갔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고 그 이상에 관해서 알고 싶다. 아마도 이 호기심을 채우려면 다음 11월에 있을 강좌를 더 들어야 할 듯하다. **C**